

Session 16 David Anointed King in Hebron: Civil War (2 Sam. 2-4) 제 16 장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내전 (삼하 2-4 장)

I. DAVID INQUIRED OF THE LORD

다윗이 주께 물어보다

- A. After Saul died in battle, there were no obstacles to stop David from taking the throne of Israel. The only rival to the throne was Saul's youngest son, Ishbosheth, who was a fearful and weak leader. Saul's death brought chaos to the leadership of Israel; thus it was an opportune time for David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take the throne. But instead David inquired of the Lord as to what to do. He refused to grasp the throne while in En Gedi and Ziph and now once again.

사울이 전투에서 죽은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한 명의 라이벌이 있었다면 이는 두려움 많고 연약한 리더인, 사울의 가장 어린 아들인 이스보셋이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리더십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는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그는 엔게디와 시에서 보좌를 차지할 기회를 잡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

¹It happened after this that 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up to any of the cities of Judah?"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David said, "Where shall I go up?" And He said, "To Hebron..." ⁴There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the house of Judah. (2 Sam. 2:1-4)

¹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 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삼하 2:1-4)

- B. *Inquired of the Lord:* After mourning for Saul, the first thing David did was to inquire of the Lord. David inquired of the Lord (1 Sam. 23:2, 4, 11-12; 30:8-9; 2 Sam. 2:1-2; 5:19, 23; 21:1; Ps. 27:4).

여호와께 여쭙어 가로되: 다윗이 사울을 위해 애곡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었다 (삼상 23:2, 4, 11-12; 삼하 2:1-2; 5:19, 23; 21:1; 시 27:4).

- C. During David's seven years in Hebron he was tested by receiving only a *partial fulfillment* of what God promised him. Here he was king over only one tribe—Judah—instead of all 12 tribes that God spoke to him about ruling. He was age 30 to 37 during his seven years in Hebron (2 Sam. 2-4).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7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의 일부분만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단지 한 지파, 유대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12 지파 전부였다. 그가 헤브론에 있는 7년 동안은 그가 30세에서 37세까지의 나이였을 때였다 (삼하 2-4 장).

- D. David was preoccupied with doing God's will, not with being king. He saw himself first as who he was *before God* and second as who he was *before men*. David's greatest desire was to love and obey the Lord, regardless of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seasons of his life. His primary life goal was not to be king but to be obedient to God, to know His heart, and to behold His beauty. Being king was secondary to David; that is what made David so different from Saul.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열중했으며, 왕이 되는 것에 열중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 생각했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다윗의 가장 큰 갈망은 환경의 변화나 삶의 시조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왕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 이차적인 일이었으며,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매우 다른 점이였다.

- E. **Leadership lesson:** The *promise of God* and the *timing of God* are separate issues. We will never lose anything in God by responding with patience and humility. David was patient, but not passive.

리더십 강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와 겸손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인내했으며, 이는 그가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II. DIVINE DIPLOMACY: BEING WISE AS A SERPENT (MT. 10:16)

다윗의 사람들과의 관계: 뱀 같이 지혜로움 (마 10:16)

- A. Jesus called His people to be wise as a serpent, but innocent as a dove (Mt. 10:16). He wants us to be wise related to human dynamics. “Wise as a serpent” speaks of employing “*divine diplomacy*” in our approach to decisions related to situations with complex human dynamics, without being naïve. This includes having insight into the nature of fallen people or the ability to grasp how weak human tendencies can affect a situation. David was both wise and innocent (good motives).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뱀 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10:16).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된 일에서 지혜로울 것을 원하셨다. “뱀 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복잡한 일에서 분별력이 없이 행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관계적인 능력)”를 가지고 결정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며, 인간의 연약함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다윗은 지혜롭기도 했고, 순결(선한 동기)하기도 했다.

¹⁶“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Mt. 10:16, ESV)

¹⁶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 B. Diplomacy is based on sincere motives—genuinely valuing others enough to invest the time and effort to express that value to them. Merely being “political” is to give a public show of valuing others, yet lacking sincerity about it. The *virtue* of *diplomacy* is in making the effort to express value for others. The *peril* of being *political* is in doing it only for show.

관계적인 능력은 진실한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다른 이들을 진실로 가치 있게 여기며, 이들에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정치적”이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만 할 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관계적인 능력의 미덕과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있다. **정치적이 되는 것의 위험성**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다.

- C. In 2 Samuel 2-4 David made decisions that showed his insight into the tendencies of fallen people.

삼하 2-4 장에서의 다윗의 결정은 타락한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 그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DAVID ANOINTED KING AT HEBRON (2 SAM. 2:1-4)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삼하 2:1-4)

A. David sought the Lord for clear direction for his life (2:1-3).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구했다 (2:1-3).

¹It happened after this that 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up to any of the cities of Judah?”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David said, “Where shall I go up?” And He said, “To Hebron.”² So David went up there, and his two wives also, Ahinoam the Jezreelitess,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the Carmelite. ³And David brought up the men who were with him, every man with his household. So they dwelt in the cities of Hebron.⁴ Then the men of Judah came, and there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the house of Judah. (2 Sam. 2:1-4)¹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²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³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삼하 2:1-4)

B. **Go up:** the Lord told David to go up from Ziklag to Judah. Judah is a territory; Hebron is a city. The Lord did not initially specify a city until David asked. The Lord often gives us a general direction and then gives more details as we continue to ask for them. He does not make known His entire plan for us at one time, but keeps us in conversation with Him as He gives us more direction.

올라가라: 주님은 다윗에게 시글락에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유다는 넓은 지역을 말하며 헤브론은 도시이다. 주님은 다윗이 구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특정한 도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보통 우리에게 큰 영역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에 대해 계속해서 구할 때에 자세한 부분을 알려주신다. 그분은 한 번에 그분의 전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하도록 하시며 그 가운데 더 많은 인도하심을 부어주신다.

C. **Two wives:** David married two women from two cities in Judah (Carmel and Jezreel). His marriage to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gave him connection with two powerful families in that region.

두 아내: 다윗의 두 아내는 유다의 두 도시 출신이었다 (갈멜, 이스르엘). 그가 이스르엘 출신의 아히노암과 결혼하고,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은 그 지역의 권세 있는 집안과 연결되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D. When David became king, he did not forget the men who shared his trials in his wilderness years. David remembered the men who fought the battles with him. This was a foreshadowing of Jesus calling His disciples to reign forever with Him. Those who suffer with Him will reign (2 Tim. 2:12).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광야에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전투에서 싸웠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분과 함께 참고 고난 받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딤후 2:12).

IV. DAVID HONORED THE HOUSE OF SAUL (2 SAM. 2:4-7)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존귀히 여김 (삼하 2:4-7)

- A. David's first act as king was to honor Saul by blessing the men of Jabesh Gilead, who buried Saul (2:4) and his three sons (1 Sam 31:11-13). This is an example of David employing diplomacy in his attitude and actions to help unify Israel.

다윗이 왕이 되어 처음 한 일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장사한(2:4)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사울을 존중한 일이다 (삼상 31:11-13).

⁴...And they told David, saying, "The men of Jabesh Gilead were the ones who buried Saul."

⁵So David sent messengers to the men of Jabesh Gilead, and said to them, "You are blessed of the LORD, for you have shown this kindness to your lord, to Saul, and have buried him... ⁶I also will repay you this kindness... ⁷Therefore, let your hands be strengthened, and be valiant; for your master Saul is dead, and also the house of Judah has anointed me king..." (2 Sam. 2:4-7)

⁴ ...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⁵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⁶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⁷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삼하 2:4-7)

- B. **Jabesh Gilead:** The men of Jabesh Gilead heard that the Philistines desecrated Saul's body. They honored Saul as God's anointed by burying him. This humiliated the Philistines publicly.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인들이 사울의 시체를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기에 그의 시체를 묻었다. 이는 블레셋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일이었다.

⁸...the Philistines came to strip the slain...they found Saul and his three sons...⁹They cut off his head...¹⁰and they fastened his body to the wall of Beth Shan.¹¹Now when the inhabitants of Jabesh Gilead heard what the Philistines had done to Saul, ¹²all the valiant men arose...took the body of Saul and...his sons...and they came to Jabesh and burned them there. (1 Sam. 31:8-12)

⁸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⁹ 사울의 머리를 베고 ... ¹⁰ ...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¹¹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¹²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삼상 30:8-12)

- C. **Kindness:** David sent a message of kindness to these men expressing his value for them. This was an expression of his diplomatic wisdom. The nation waited to see how David would treat the people associated with Saul's house. His message of kindness relieved anxiety in some of them since Saul had pursued David as his enemy. By honoring Saul, David signaled to them that he was not seeking to seize the throne from Saul's family and, as king, he would help them if the Philistines attacked.

선한 일: 다윗은 그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표현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혜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사울 집안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그의 선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열마를 안심하도록 해줬는데, 이는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쫓았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만일 블레셋이 공격하면 그가 왕으로서도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 ABNER ESTABLISHED ISHBOSHETH AS KING OVER ISRAEL (2 SAM. 2:8-11)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다 (삼하 2:8-11)

- A. Abner took Ishbosheth to Mahanaim to anoint him as king over Israel.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⁸*But Abner...commander of Saul's army, took Ishbosheth the son of Saul and brought him over to Mahanaim; ⁹and he made him king over Gilead, over the Ashurites, over Jezreel, over Ephraim, over Benjamin, and over all Israel. ¹⁰Ishbosheth, Saul's son, was fo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over Israel, and he reigned two years...¹¹The time that David was king in Hebron over the house of Judah was seven years and six months. (2 Sam. 2:8-11)*

⁸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⁹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¹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 이며 주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¹¹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더라 (삼하 2:8-11)

- B. **Ishbosheth:** He was an incompetent leader, being a weak man who was easily intimidated.

이스보셋: 그는 무능한 지도자였으며, 쉽게 겁을 먹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 C. **Abner:** Saul's cousin (14:50), Abner was the top commander of Israel's army under Saul and Ishbosheth. He was the most influential man in Israel. Instead of establishing himself as king, he wanted a descendant of Saul to be king. Thus he used Ishbosheth to legitimize his own power base.

아브넬: 사울의 사촌인 (삼상 14:50) 아브넬은 사울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장관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보다, 사울의 자손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는 이스보셋을 세움으로 자신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 D. **Mahanaim:** Abner relocated the capital to Mahanaim because Gibeah, the former capital city had been taken over by the Philistines after Israel lost the battle to them (1 Sam. 31). The city was east, across the Jordan River, about 35 miles from Gibeah, far enough from the Philistines to be safe.

마하나임: 아브넬은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옮겼는데, 이전의 수도인 기브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삼상 31 장). 마하나임은 기브아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35 마일(약 55km)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할 만큼 충분히 먼 곳이었다.

- E. **Seven years:** It seems that Ishbosheth became king during the two years that correspond to the sixth and seventh years of David's reign in Hebron. The Philistines controlled the region around Gibeah during that time and prevented an Israelite from coming to the throne. Thus Abner was the primary leader in Israel for the first five years of David's seven-year reign before anointing Ishbosheth.

칠 년: 이스보셋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6 번째와 7 번째에 해당하는 2 년 동안 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레셋은 이 시기 동안 기브아 주변의 지역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따라서 아브넬은 다윗이 7 년 통치 기간 중 처음 5 년 동안, 즉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였다.

VI. THE CIVIL WAR BETWEEN ISRAEL AND JUDAH (2 SAM. 2:12-4:12)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내전 (삼하 2:12-14)

- A. These three chapters describe important events that occurred during a civil war between Israel and Judah that happened during the last two years of David's seven-year reign in Hebron.

이 세 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7 년의 시간 중 마지막 2 년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내전 중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¹*Now there was a long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2 Sam. 3:1)*

¹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삼하 3:1)

- B. David longed for Israel to be unified with Judah, but various battles and murders (of Abner and Ishbosheth) set that process back. However, David's wise actions kept the process going forward.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다양한 전쟁과 살인들로 인해 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이 둘은 하나를 향해 나아갔다.

VII. ABNER'S AND JOAB'S DEADLY CONFLICT AT GIBEON (2 SAM. 2:12-32)

기브온에서 있었던 아브넬과 요압 간의 치명적인 충돌 (삼하 2:12-32)

- A. Abner and his men fought Joab and his men at Gibeon (2:12-13). Gibeon was a midpoint between Ishbosheth's headquarters in the north at Mahanaim and David's in the south at Hebron.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기브온에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싸웠다 (2:12-13). 기브온은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본부(마하나임)와 남쪽에 있는 다윗의 본부(헤브론)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¹²*Now Abner...and the servants of Ishbosheth ...went out from Mahanaim to Gibeon. ¹³And Joab...and the servants of David, went out and met them by the pool of Gibeon. (2 Sam. 2:12-13)*

¹²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¹³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삼하 2:12-13)

- B. Abner challenged Joab to let their men compete in a deadly contest of hand-to-hand combat (2:14).

아브넬은 요압에게 도전해서 서로의 부하들에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백병전을 치르게 하자고 했다 (2:14).

¹⁴Then Abner said to Joab, “Let the young men now arise and compete before us.”...¹⁵So they arose and went over by number, twelve... followers of Ishbosheth the son of Saul, and twelve from the servants of David. ¹⁶And each one grasped his opponent by the head and thrust his sword in his opponent’s side; so they fell down together. (2 Sam. 2:14-16)

¹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대 ¹⁵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¹⁶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삼하 2:14-16)

- C. Afterwards, the two armies attacked each other in a fierce battle (2:17-23).

이후에 이 두 군대는 서로를 공격하며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2:17-23).

¹⁷So there was a very fierce battle that day, and Abner and the men of Israel were beaten before the servants of David. ¹⁸Now the three sons of Zeruiah were there: Joab and Abishai and Asahel... ¹⁹So Asahel pursued Abner...²²Abner said to Asahel, “Turn aside from following me. Why should I strike you to the ground?...²³However, he refused to turn aside. Therefore Abner struck him in the stomach with the blunt end of the spear...Asahel...died. (2 Sam. 2:17-23)

¹⁷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¹⁸ 그 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 ¹⁹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 ²²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 ²³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 곳에 엎드려져 죽으매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삼하 2:17-23)

- D. **Sons of Zeruiah:** David’s sister Zeruiah had three sons: Joab, Abishai, and Asahel (1 Chr. 2:16). They each held positions of authority in David’s army. They were loyal to David and skillful in battle, but they were also impulsive and violent, and they caused David real problems.

스루야의 세 아들: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다 (대상 2:16). 그들은 다윗의 군대에서 각자 높은 위치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웠으며 전투에 능했지만, 동시에 충동적이며 과격하기도 했고, 다윗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안겨줬다.

VIII. DAVID’S HOUSE GREW STRONGER AND STRONGER (2 SAM. 3:1)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감 (삼하 3:1)

- A. David’s house and influence grew stronger, and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3:1). The tensions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lasted seven and a half years (2:11).

다윗의 집과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졌으며,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3: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긴장감은 7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2:11).

¹*Now there was a long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But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and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2 Sam. 3:1)*

¹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삼하 3:1)

- B. Many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the kingdom happen slowly, taking few years to unfold. The Lord often allows increase to come little by little to protect His people from being harmed (Deut. 7:22).

한 나라의 여러 가지 과정과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며, 실제적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일에도 조금씩 증가하도록 일하시기도 한다 (신 7:22).

²²*And the LORD....will drive out those nations before you little by little; you will be unable to destroy them at once, lest the beasts of the field become too numerous for you. (Deut. 7:22)*

²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신 7:22)

IX. ABNER SUPPORTED DAVID AS KING (2 SAM. 3:6-21)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다 (삼하 3:6-21)

- A. The hostilities between the house of David and Saul heightened the last two years (3:6-11).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간의 적대감은 마지막 2년 동안 더 높아졌다 (3:6-11).

⁶*Now it was so, while there was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that Abner was strengthening his hold on the house of Saul. ⁷And Saul had a concubine, whose name was Rizpah...So Ishbosheth said to Abner, “Why have you gone in to my father’s concubine?” ⁸Then Abner became very angry at the words of Ishbosheth, and said, “...I show loyalty to the house of Saul your father...and have not delivered you into the hand of David; and you charge me today with a fault concerning this woman? ⁹May God do so to Abner, and more also, if I do not do for David as the LORD has sworn to him—¹⁰to transfer the kingdom from the house of Saul, and set up the throne of David over Israel and over Judah, from Dan to Beersheba.” (2 Sam. 3:6-10)*

⁶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⁷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⁹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별 위에 별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¹⁰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삼하 3:6-10)

- B. **Rizpah:** Ishbosheth accused Abner of treason by being involved sexually with Rizpah (3:7), a concubine in Saul's harem. To touch a king's concubine sexually was an act of treason.

리스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한 것으로 인해 그가 반역을 했다고 정죄했다 (3:7). 왕의 첩을 성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반역 행위였다.

- C. **Do for David as the LORD has sworn to him:** Abner had a sudden change of heart as a result of this accusation and decided on the spot to support David until all of Israel came under David's kingship. It was well known that the Lord promised to make David over all Israel (3: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넬은 이 정죄로 인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 아래에 들어갈 때까지 다윗을 지지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주님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3:9).

- D. **Leadership lesson:** When leaders feel betrayed they often use their position of power to cause negative repercussions to their accusers. David was so unusual in that he did not yield to this.

리더십 강의: 리더들이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종종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 다윗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은 드문 지도자였다.

- E. Abner sent messengers to David to begin the process of turning the kingdom to him (3:12-14).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다 (3:12-14).

¹²Abner sent messengers on his behalf to David, saying, "Whose is the land?" saying also, "Make your covenant with me, and indeed my hand shall be with you to bring all Israel to you."¹³ And David said, "Good, I will make a covenant with you. But one thing I require of you: you shall not see my face unless you first bring Michal, Saul's daughter, when you come to see my face." (2 Sam. 3:12-14)

¹²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¹³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¹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삼하 3:12-14)

- F. Abner had led military conflicts against David's army and even had killed one of David's close relatives—Asahel (2:23). He sent messengers to tell David that he was willing to use his position to bring all the tribes of Israel to David. Abner had confidence in David's integrity, having watched him over the years respond to Saul. David came to agreement with Abner. He knew that the nation could be unified and its welfare established much faster through diplomacy than by war.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를 대적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까운 친척인 아사헬을 죽이기도 했다 (2:23).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돌아가게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아브넬은 다윗이 수년간 사울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다윗은 아브넬과 합의를 했다. 그는 전쟁을 하기보다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면, 더 빠르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며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G. **Michal:** David wanted to reestablish his family link with Saul. By doing this, he could legitimize his claim to be king over Israel. This was another expression of wise diplomacy in sincerely esteeming the house of Saul. The message was clear that David had a legitimate claim to the throne and that David would honor the Benjaminites and not penalize them. Therefore, they did not need to fear that David take vengeance on them because David was honoring Saul's family so much.

미갈: 다윗은 사울의 집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사울의 집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것은 그의 지혜로운 관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나타내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다윗은 왕위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베냐민 지파를 벌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의 집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기에, 그가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 H. Abner's plan escalated after he spoke with elders of Israel (3:17-18).

아브넬의 계획은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을 한 이후에 더욱 구체화되었다 (3:17-18).

***17** Now Abner had communicated with the elders of Israel, saying, "In time past you were seeking for David to be king over you. **18** Now then, do it! For the LORD has spoken of David, saying, 'By the hand of My servant David, I will save My peopl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2 Sam. 3:17-18)*

17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한글 KJV: 과거에]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삼하 3:17-18)

- I. **Elders of Israel:** The elders were among the most influential men in their cities. Soon after this, the elders affirmed David's divine right to rule over them and took part in his anointing (5:2-3).

이스라엘의 장로들: 장로들은 그들의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 일 후에, 이 장로들은 다윗이 그들을 통치할 하늘이 주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그를 기름 붓는 일에 동참했다 (5:2-3).

- J. **In times past:** Apparently some of the elders considered making David king during the five years following Saul's death, before Abner made Ishbosheth king two years earlier. The elders had heard reports of what Saul said to David in En Gedi and in Ziph about being king (1 Sam. 24:20; 26:25).

과거에: 명확히 몇몇의 장로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 아브넬이 2년 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기 전까지의 5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생각했었다. 이 장로들은 사울이 엔게디와 시에서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삼상 24:20; 26:25).

- K. Abner as the most influential Benjamite set a plan in motion to make David king over all Israel (3:19-21). This involved transferr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military to David.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아브넬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 (3:19-21). 이 일에는 나라의 통치와 군사력을 다윗에게 이전하는 일이 필요했다.

¹⁹Abner also spoke in the hearing of Benjamin. Then Abner also went to speak in the hearing of David in Hebron all that seemed good to Israel and the whole house of Benjamin. ²⁰So Abner and twenty men with him came to David at Hebron. And David made a feast for Abner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²¹Then Abner said to David, “I will arise and go, and gather all Israel to my lord the king, that they may make a covenant with you, and that you may reign over all that your heart desires.” So David sent Abner away, and he went in peace. (2 Sam. 3:19-21)

¹⁹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²⁰ 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²¹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삼하 3:19-21)

- L. **Benjamin:** Abner held a special meeting with the leaders of the tribe of Benjamin. Their acceptance of David was essential because it necessitated them rejecting Ishbosheth, a fellow Benjaminite.

베냐민: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는데, 왜냐면 이 일은 그들의 동료 베냐민 지파인 이스보셋을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M. **Feast:** David treated Abner and his company as honored guests at the royal residence.

잔치: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왕의 처소에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

X. JOAB MURDERED ABNER (2 SAM. 3:22-27)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다 (삼하 3:22-27)

- A. After David finished his meeting, Joab returned from a raid resulting in much plunder (3:22-25). He was furious with David when he heard that David was planning on a partnership with Abner. Joab hated Abner for killing his brother (2:23) and was probably threatened by the likely chance that Abner as an experienced military leader would take his role as David’s top leader of the army.

다윗이 아브넬을 만난 이후, 요압은 적을 습격한 이후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3:22-25). 그는 다윗이 아브넬과 협력하려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분노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것으로 인해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2:23), 아브넬이 아주 경험이 많은 군 지도자였기에 다윗의 군대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²²At that moment...Joab came from a raid and brought much spoil with them. But Abner was not with David in Hebron, for he had sent him away...²⁴Joab came to the king and said, “What have you done? Look, Abner came to you; why is it that you sent him away...?”²⁵Surely you realize that Abner...came to deceive you, to know...all that you are doing.” (2 Sam. 3:22-25)

²²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 ²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²⁵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삼하 3:22-25)

- B. Joab murdered Abner (3:26-27). Joab could not see the big picture of God’s purpose and the blessing on the whole nation that would result from unity with David and Abner.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했다 (3:26-27). 요압은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으며, 다윗과 아브넬이 연합함으로 나라 전체에 부어질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²⁶ *...Joab...sent messengers after Abner, who brought him back...But David did not know it. ²⁷Now when Abner had returned to Hebron, Joab took him aside...to speak with him privately, and there stabbed him...so that he died for the blood of Asahel his brother. (2 Sam. 3:26-27)*

²⁶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 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²⁷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찢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삼하 3:26-27)

XI. DAVID SHOWED HIS INNOCENCE RELATED TO ABNER’S DEATH (2 SAM. 3:28-39)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결백함을 보임 (삼하 3:28-39)

- A. David was grieved by the murder of Abner (3:28-39). He distanced himself from Joab’s great sin. David publicly stood against what Joab did, boldly making known that he had no part in it. David required all who participated in Abner’s murder to publicly show their sorrow over Abner’s death.

다윗은 아브넬이 살해당한 것으로 인해 슬퍼했다 (3:28-39). 그는 요압의 큰 죄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다윗은 요압이 한 일을 공개적으로 대적했으며, 자신이 이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담대하게 밝혔다.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하는 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애도할 것을 요구했다.

²⁸ *Afterward, when David heard it, he said, “My kingdom and I are guiltless before the LORD forever of the blood of Abner...” ²⁹Let it rest on the head of Joab and on all his father’s house...” ³¹David said to Joab and to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Tear your clothes, gird yourselves with sackcloth, and mourn for Abner...” ³²So they buried Abner in Hebron; and the king lifted up his voice and wept at the grave of Abner, and all the people wept. (2 Sam. 3:28-32)*

²⁸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²⁹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 ³¹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 ³²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한글 KJV: 모든 백성이) 다 우니라 (삼하 3:28-32)

- B. *All the people wept*: David’s response set the context for all the people to respond in a similar way to the death of a man who was an enemy of their homeland—Judah (3:32, 34). David’s response becomes the people’s response. Great violence could have broken out in Hebron because of this murder, but because of David’s response the nation was unified. David expressed honor to Abner and helped to establish the values and narrative that would form the future for Hebron and Israel.

모든 백성이 다 우니라: 이 일에 대해 다윗이 보인 반응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유다의 대적이었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결과를 낳게 했다 (3:32, 34). 다윗이 보인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이 되었다. 이 살인으로 인해 헤브론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반응으로 인해 나라 전체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다윗은 아브넬에 대해 조의를 표명했으며, 헤브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가치와 스토리를 세워나가는 데에 도움을 줬다.

XII. DAVID EXECUTED THE MEN WHO MURDERED ISHBOSHETH (2 SAM. 4:1-12)

다윗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를 처형함 (삼하 4:1-12)

- A. Recab and Baanah, two leaders of a lower rank in Israel’s army killed Ishbosheth (2 Sam. 4:1-7).

이스라엘 군대에서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던 두 지도자인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을 죽였다 (삼하 4:1-7).

⁵...*Rechab and Baanah, set out and came at about the heat of the day to the house of Ishbosheth, who was lying on his bed at noon.* ⁶*And they came there...and stabbed him in the stomach...* ⁸*And they brought the head of Ishbosheth to David at Hebron, and said to the king, “Here is the head of Ishbosheth, the son of Saul your enemy, who sought your life...”* (2 Sam. 4:5-8)

⁵ ...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⁶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 ⁸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 (삼하 4:5-8)

- B. David executed them and had them hung publicly as a public statement of his support for Israel.

다윗은 그들을 처형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보이는 곳에 매달았다.

¹²*David...executed them...and hanged them by the pool in Hebron.* (2 Sam. 4:12)

¹²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 (삼하 4:12)